

방송의 디지털화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의 변화 -생산자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이희중*, 나미수**

대전보건대학교 방송콘텐츠과 교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hange of documentary background music according to the digitalization of broadcasting

Hee chung, Lee*, Misu, Na**

Professor, Dept. of Broadcastig and Contents,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of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변화된 방송환경에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배경음악 사용에 대한 생산자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배경음악 사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14명의 생산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방송 디지털화에 따라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은 작곡음악보다는 라이브러리음악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다큐멘터리 음악은 작품성, 다양성, 편리성 등으로 라이브러리음악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라이브러리음악의 보편화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생산자들 간의 관계와 배경음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연출자(PD)와 음악감독의 공동작업이었던 배경음악 생산은 편집영상을 이메일 등을 통해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진 채 업무가 분업화되고 있다. 다큐멘터리의 라이브러리 음악 사용은 결국 다양한 방송제작 주체들의 창조적 생산활동 참여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음악사용의 규격화와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함의에 도달하였다.

주제어 : 다큐멘터리 배경음악, 라이브러리음악,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방송의 디지털화

Abstract By employing in-depth interviews with a total of 14 television producers, the study seeks to investigate how the use of documentary background music has changed in the rapidly evolving media technology. This study reveals two major findings. First, the use of traditional compositional background music in TV documentary has been decreased for the last 20 years, while library music with various sound sources has been more likely to be used due to its artistic value, its digitalized formats, and its convenience. Second, the popularity of the library music use has change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V documentary producers and music directors, and their views on background music. Overall, compared to the past, the new media technology (e.g., much easier, faster editing process and communication through e-mails) has helped to come up with the current trend of using more library music. This trend however implies that the dependency of library music only may lose the unique value of television documentary as a work of creative art and eventually downgrade the quality of the programs. Further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documentary background music, library music, television documentary, digitalization of broadcasting

* This study is sponsored by the 2014 research fund of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of university

Received 26 May 2014, Revised 26 June 2014

Accepted 20 Sept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Misu, Na(Associate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misuna@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문제제기

텔레비전에서는 ‘영상’과 함께 언제나 ‘소리’가 흐른다. 그럼에도 텔레비전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영상’이 중심이고 ‘소리’는 부차적이다. 이는 텔레비전이 시각적인 요소가 주를 이루는 영상매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소리는 영화감상의 절반을 차지한다”^[1]는 주장이 있듯이 텔레비전에서 소리를 그저 주변부로 인식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는 사람의 음성, 효과음, 현장음, 음악 등이 있다. 특히 텔레비전에서 음악없이 영상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음악이 없는 영상은 시청자의 경험을 대폭 감소시키며 그들의 감정적 풍요로움을 축소시키고, 의사전달이 불확실할 수도 있다^[1]. 따라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음악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프로그램 연출자들이 시청자들을 지속적으로 사로잡고 시각적인 흥미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음악이기 때문이다^[2].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의 하나인 다큐멘터리에서 소리 즉 음향은 일반적으로 배경음악(BGM: Background Music)과 효과음(Effect sound, 그리고 현장음(SOV: Sound of VCR)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다큐멘터리에서 배경음악은 영상이나 내레이션, 자막과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배경음악은 영상과 내레이션, 현장음 등과 믹싱(mixing)되어 프로그램의 영상미를 보충해주기도 하고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을 도우며 시청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다. 다시 말해 배경음악은 연출자가 프로그램에 담고자 하는 메시지와 영상 미학적 요소들을 시청자에게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배경음악 자체가 다큐멘터리의 미학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도 있다^[3].

1960년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는 방송기술의 디지털화에 따라 영상편집 뿐만 아니라 배경음악 사용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음반제작사들은 LP나 CD 외에 디지털 음원(music source)

을 구축하여 방송사에 라이브러리음악(library music)^[2]을 공급하게 된 것이다^[4]. 이러한 라이브러리음악은 음악전문 프로그램은 물론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 등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 라이브러리음악의 확산으로 아날로그 시절의 음반이나 테이프가 디지털 파일로 대체되면서 배경음악의 사용은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해졌다. 즉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영상 뿐 아니라 배경음악 사용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음악 사용의 확산과 같은 방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연구에서 배경음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연구는 내러티브 구성 방식을 논의하거나^[5,6,7,8,9,10,11,12], 다큐멘터리 장르의 변화를 고찰하였으며^[13,14,15,16,17,18,19], 또는 다큐멘터리 생산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20,21,22]. 국내외 몇 편의 연구에서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을 다루었으나 그마저도 대부분 부수적으로 배경음악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쳤다^[23,24,25,26,27,28,30].

이처럼 다큐멘터리 연구를 비롯한 영상연구에서 배경음악에 대한 연구가 소홀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배경음악이 영상을 보조하는 부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로 취급받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배경음악은 다큐멘터리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방송제작이 디지털화되면서 배경음악 사용은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즉 방송환경의 변화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 영상 편집뿐만 아니라 배경음악 사용에 있어 아날로그 시대와는 다른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의 가장 큰 변화는 아날로그 시절 주로 사용되던 작곡음악 대신 디지털환경에 따라 쉽고 편리한 방식인 라이브러리음악 사용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1] 이 말은 스타워즈 시리즈 감독 조지 루카스(George Lucas)가 한 것이다. 영어 원문은 “Sound is the fifty percent of a motion picture's experience.” (Sonnensvhein, 2001/2009, 재인용)

[2] 일반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모든 음악은 새로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여 사용하든지, 아니면 기존 음악을 사용할 경우 그 저작권(작곡가, 작사가, 연주자, 판권 소유자 등)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범위와 목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라이브러리음악이다. 음악을 장르별로 혹은 분위기와 악기별로 연주하여 녹음한 음원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 범위 내(라디오 광고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이 해결된 음악을 말한다(삼호뮤직편집부, 2002).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큐멘터리에서 배경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방송의 디지털화 이후에 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 배경음악의 사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문헌연구

2.1 디지털 기술도입과 제작환경의 변화

사회변동과 기술발달에 따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고화질 카메라와 동시녹음 기술의 발달로 예전보다 훨씬 생생한 다큐멘터리 영상과 소리를 만들 수 있으며, 디지털 촬영장비와 편집기로 빠르고 정교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날로그 방식에서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영상편집은 플레이어용 VCR과 녹화용 VCR을 연결하여 재생-녹화하는 방식인 일대일(linear) 방식이었다.^[3] 하지만 디지털환경에서 영상편집은 선형(linear) 편집방식이 아닌 ‘프리미어(premiere)’나 ‘파이널 컷 프로(final cut pro)’ 등을 활용한 비선형(non-Linear)방식이다. 비선형 편집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서버, 즉 가상의 공간에 영상을 디지털 신호로 저장 가능해지면서 파일을 손쉽게 끌어와 작업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효율성면에서 아날로그 방식보다 훨씬 용이하다.

디지털 편집, 즉 비선형 편집으로의 전환은 영상과 배경음악 그리고 자막 등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몇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영상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패스트 편집(fast editing)이나 멈추게 하는 홀드(hold) 작업을 할 수 있어, 편집 과정은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 속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31]. 또한 디지털 편집은 하나의 시퀀스에서 편집이 진행되어 가편집과 본편집 등의 작업과정에서 테이프(tape) 복사 절차가 사라지면서 열화현상으로 인한 화질과 음질의 손실 없이 프로그램이 제작된다.

이러한 비선형 편집방식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역

[3] 일대일(linear) 방식 혹은 선형 편집방식이란 원본을 재생할 기기(play)와 녹화(record)할 기기를 연결하여 편집하는 방식이다. 마스터 테이프를 만들기 전 가편집을 할 때 주로 하는 편집으로 대부분 컷 편집이 이루어지며, 화면전환이나 효과를 넣기는 힘든 편집방식이다.(서혜욱,2003)

할을 분담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방식을 촬영에서부터 영상편집, 배경음악이나 자막까지도 한사람이 맡을 수 있는 ‘1인 제작 시스템’으로 바꾸어 놓았다^[32]. HD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한 뒤 어도비(Adobe)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의 비선형 편집시스템을 이용하면 누구나 영상을 편집이 가능해져 한 사람이 기획, 촬영, 편집까지를 모두 할 수 있게 되었다^[33].

또한 비선형 편집방식은 영상과 맥을 같이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배경음악의 사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34] 디지털 제작환경이 되면서 연출자나 음악가들이 이에 적합한 음원을 찾아 쉽게 넣을 수 있어, 제작기간과 여건에 따라 작곡음악 대신에 디지털화 된 라이브러리음악을 찾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2.2 디지털화와 배경음악 사용의 변화: 라이브러리음악 사용의 보편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배경음악 사용에 변화가 나타났다. 80년대 중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에 대한 관심 있는 몇몇 제작자들이 작곡음악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뉴스 시그널과 중계 시그널, 일부 드라마와 교양 다큐멘터리 등 다수의 프로그램 배경음악이 작곡 음악이 사용되었다^[35].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이 서양 고전음악이나 영화음악 대신 특정 프로그램을 위한 음악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작곡음악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국내 방송가에서는 1990년대 중반 저작권을 취득한 수만 곡의 라이브러리 음반과 효과음이 수입되어 방송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라이브러리음악과 효과음들은 상황별, 감정별 또는 음악 장르별로 분류되어 있고 길이 등이 버전을 달리해 제작되어 있어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2000년대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서 음악 산업에 또한 번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디지털 음악 산업은 IT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하였다. 디지털 음악의 자유로운 활동과 편리함은 사용자들의 소비성향을 전환시켰고 2003년을 기점으로 디지털음악은 음반 산업의 매출을 넘어서면서 음악 산업 전반의 변화를 가져

왔다[36].

이러한 음악 산업의 변동은 텔레비전 배경음악의 사용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라이브러리음악 이용의 확산은 방송프로그램의 배경음악 장르에도 변화를 주어 프로그램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배경음악을 사용하게 되었다[37]. 이에 따라 최근 방송프로그램 배경음악들은 관습적으로 이용되던 장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통사극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국악음악 대신 대중가요나 퓨전음악이 삽입되기도 한다. 실제로 MBC에서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사극 <대장금>에서는 종전까지 사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국악 장르 음악 대신에 어린이 합창 음악이 사용되었고, KBS 드라마 <추노>에서는 전통음악과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곡과 가사가 담긴 대중가요를 주제음악으로 사용하여 시중에서 크게 유행하기도 하였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보통 가사가 없는 경음악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제작되는 프로그램에서는 팝송이나 영화음악 가운데 가사가 있는 곡들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한 라이브러리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음악을 작곡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시간적, 경제적인 절감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음악은 방송프로그램 배경음악의 장르를 다양화하고 제작비를 절감하고 제작시간을 단축해줌으로써 텔레비전을 비롯한 많은 매체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수준의 라이브러리음악들이 여러 매체에서 활동하는 음악 담당자들에게 유통되어 여러 방송 채널들에서 비슷한 음악들이 쓰이고 있는 폐해를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38]. 즉 라이브러리음악의 사용이 오히려 방송음악의 다양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음악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배경음악으로서 라이브러리음악의 사용이 프로그램 제작 방식이나 프로그램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3 외주제작시스템과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의 변화

방송기술의 발달은 기존 제도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송 정책마련과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한다. 또한 새로

운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모색하려는 방송사조직 내부의 움직임도 유발한다[39].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써 외주정책은 채널이 다양해지고 매체가 늘어남에 따라 잠재적 유통 창구를 확대하고, 방송영상물 수요시장의 확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제작, 공급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바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주정책이 도입되고, 디지털기술과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 콘텐츠 유통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디지털과일 형태의 라이브러리음악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에게 새로운 배경음악 사용의 기회가 되었다. 특히 라이브러리음악이 보편화된 시기는 외주 프로그램이 급속하게 증가한 때와 맞물리는데 이때는 라이브러리음악의 수요 또한 늘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방송사와는 달리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제작시간에 쫓기는 외주제작사들은 작곡음악 대신에 저작권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음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작곡음악을 대신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음악 사용 환경은 외주제작사를 중심으로 더욱 촉진되었다고 하겠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방송 제작환경의 디지털화에 따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배경음악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자들의 심층인터뷰를 시도하였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연출자와 음악감독 등 생산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변화된 방송환경에서 배경음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배경음악 사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방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출자 및 음악가로서, 최소 8년부터 최고 26년의 다큐멘터리 제작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출자 9명(외주 PD포함)과 방송음악 관계자인 작곡가와 선곡가 5명이다(<Table 1> 참조).

연출자는 다큐멘터리를 수년 동안 제작해온 경력이 많은 연출자뿐만 아니라 현재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는 젊은 연출자들을 균형 있게 섭외하여 개별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또한 세대 간 연출자들이 느끼는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차례의 그룹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한편 인터뷰에 응한 5명의 음악가는 각각 8년에서 25년 동안 방송음악에 종사한 음악 전문가들이다. 1995년 저작권 강화에 따라 배경음악으로서 라이브러리 음악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이들 인터뷰 대상자들이 방송에 종사한 기간이 다양한 만큼 시기에 따라 배경음악의 사용 및 연출자와 음악가의 관계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데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를 가지고 진행되어, 연구자가 준비한 질문 외에 생산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듣기 위해 개방형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 배경음악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과 함께 방송 제작환경의 변화나 제작 관습이 배경음악 사용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출자나 음악가가 각자의 입장에서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인터뷰는 2012년 7월에서 8월까지 두 달간 이루어졌으며, 한 사례 당 인터뷰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인터뷰는 모두 녹음되었고, 분석을 위해서 전체 내용이 기록되었다.

<Table 1> Interviewees

producers	period of service(years)	age
Y	26	59
C	24	54
N	22	53
H	19	49
K1	16	46
K2	15	45
K3	12	38
S	9	35
K	8	35
broadcasting musicians	period of service(years)	age
K1	25	58
K2	17	44
J1	23	56
J2	15	42
H	8	37

4. 연구결과

4.1 라이브러리음악의 보편화

앞서 문헌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방송환경의 변화는 배경음악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제작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으로 작곡음악보다는 라이브러리음악 사용이 확대되었다. 다큐멘터리 연출자나 음악가들은 라이브러리음악이 작품성 면에서 작곡음악에 뒤지지 않고, 장르가 다양하며, 음원의 가공과 재생산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라이브러리 음악의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4.1.1 라이브러리음악의 작품성과 장르다양성

다큐멘터리 생산자들은 라이브러리음악을 저명 작곡가가 작곡하고 유명 오케스트라와 연주자가 참여하여 만든 수준 높고 작품성 있는 음악으로 인식함으로써 이를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라이브러리음악은 유명 작곡가들이 만든 곡이 많아요 음악감독이 있고 그 위의 디렉터에 의해 곡이 만들어지죠 개인이 작곡해서 라이브러리 회사에다가 파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의 연주자나 악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음악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디렉팅이 세분화되고, 같은 음악이라도 각각 다른 느낌을 주는 수준 높은 음악입니다.(H-선곡자)

생산자들은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음악이 품질이 우수하고 작품성이 뛰어난 곡들이 많기 때문에 작곡음악보다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좋다는 것이다. 라이브러리음악이 해당 프로그램을 위하여 작곡된 음악보다 질적으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음악이며, 창작곡을 사용하느니 라이브러리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이브러리음악이 저질이라고 폄하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음질이 떨어지거나 멜로디가 안 좋아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라이브러리 음악은 보이스나 음향이 매우 좋습니다. 흔해졌다고 싸구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싸구려라는 개념에는 동의할 수 없고, 수준 높은 음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K3-PD)

생산자들이 라이브러리음악을 선호하는 이유는 주로 미디(MIDI)^[4]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작곡음악은 오케스트라 등을 동원하여 제작된 선곡음악들과 비교할 때 악기구성이 단조롭고, 전문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까닭에 음질 등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곡가에게 곡을 의뢰하여 만들더라도 품질 면에서 라이브러리음악만큼 수준 높은 곡을 기대하기 힘들고, 배경음악으로 충족되기에는 작품성이 약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은 시청자를 의식하며 곡이 선곡된다. 다큐멘터리 생산자들은 작곡된 배경음악을 잘못 넣으면 오히려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수준 높은 라이브러리음악에는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음악이 많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시청자들은 방송에 나오는 음악이 창작곡인지 라이브러리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시청자들이 본다고 생각해서 음악 전문가에게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브러리음악화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음악들이고 프로그램 질을 높일 수 있는, 어설픈게 만든 창작곡보다 수준이 검증된 음악들이거든요. 시간과 돈 때문만은 결코 아니죠(Y-PD)

이처럼 라이브러리음악인 시청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라이브러리음악의 장르가 다양하다는 점과도 관련되었다. 즉 시청자들은 계층, 연령, 성별에 따라 음악을 제각각 다르게 느끼고 받아들인다. 또한 음악이 갖는 대중적인 속성 때문에 시기에 따라 다르게 유행되고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시청자에 따라 혹은 시기에 따라 선호되는 음악이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으로 다양한 음악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음악이 활용되고 있었다.

라이브러리 음반으로 수입된 곡들은 클래식에서 팝,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에 이르기까지 음악 장르가 다양하며, 대자연에서 채집한 음원에서 일상의 소리까지 폭넓은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라이브러리음악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방송용 경음

악의 사용이 많았는데, 다큐멘터리 생산자들은 라이브러리음악의 다양성을 주목하며 방송용 경음악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에 다양한 장르의 배경음악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연출자 Y는 “80년대만 하더라도 사극에서 현대음악을 쓰면 별 이상한, 온갖 소리를 다 했어요. 시청자 불만이라고, 웃긴다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로요”라고 말했다. 드라마 음악과 마찬가지로 다큐멘터리 배경음악 역시 방송 시기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고려되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브러리음악은 수백만 곡의 수록 곡 가운데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이 많고 장르를 다양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시청자의 취향과 시대의 풍조를 고려한 음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영상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음악선택의 폭도 넓혀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었다.

방송에서는 음악 자체가 아름답다고 하면 절대 안돼요. 듣는 사람이 좋아해야 해요. (중략) 시골사람들이 막 걸리 한 잔하고 푸념할 때는 트로트 뽕짝이 좋은 것처럼 정말 오래된 유행가가 훨씬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중략)그림과 연결시켜서 좋아야지 음악 자체가 훌륭한 것이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라이브러리음악은 영상과 매칭 가능한 음악이 얼마나 많은가요(Y-PD)

다큐멘터리는 훌륭한 영상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더라도 음악이 제대로 삽입되지 않으면 영상미가 약해지고 연출자가 의도한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생산자들은 영상을 뒷받침하고 메시지의 의미전달을 위한 음악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라이브러리음악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다큐멘터리 생산자들은 라이브러리음악이 작품성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시청자들의 감성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음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라이브러리음악을 선호하고 있었다.

4.1.2 라이브러리음악의 편리성

라이브러리음악은 특정 프로그램을 위하여 작곡된 음악은 아니지만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곡수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사용될 수 있다. 라이브러리음악의 사용은 방송

[4]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는 컴퓨터와 악기, 신디사이저를 서로 연결하여 디지털 사운드를 만들어 합성한 음악을 말한다(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2011).

을 불과 한 두 시간 앞두고서도 배경음악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작곡 음악을 사용했을 때의 배경음악 사용 환경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현실이다. 이처럼 라이브러리음악을 곡수에 제한받지 않으며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연출자 K2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차피 라이센스 비용은 선곡하는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 지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30만원이면 30만원, 40만원이면 40만원, 계약을 하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 안에서 음악을 넣는 것이 거든요. 음악가들 역시 사용저작권을 확보했으니 부담 없이 음악 수에 제한받지 않고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K2-PD)

라이브러리음악은 사용자가 저작권과 관련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국내에서 특별한 제한없이 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악감독들은 음악의 장르나 수에 구애받지 않으며 라이브러리음악을 여러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 즉 한정된 비용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제한된 시간에 마음껏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또한 라이브러리음악의 편리성은 디지털 형태의 장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브러리음악은 원곡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편집, 믹싱(mixing) 과정에서 음원을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이다. 즉 디지털 과정을 살피가며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한다거나 두 세 곡을 이어 붙여 사용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음악은 이처럼 음원의 가공과 재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작곡음악에서나 가능했던 정교한 음악효과와 기능을 대신하며 다큐멘터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영상과 음악의 길이가 맞지 않으면 한 컷을 입힌다거나, 잘라내려고 밤을 샜잖아요 요즘은 마우스 두세 번이면 다 조절이 가능하니 얼마나 편해요. 음악도 대충 입혀 보았다가 길이가 안 맞으면 다른 것, 비슷한 거 골라 넣으면 되고 중간 생략하기도 하고... (중략) 생각해 보면 비선형편집은 마술상자 같아요. 영상 편집기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음악을 만들고 활용하는 방식이 확 바뀐 거

예요. 음악이 원곡으로서 가치는 손상될지 몰라도 정말 효과적인 음악입니다.(C-PD)

디지털기술의 발달 이후 방송음악은 대부분 파일 형태로 진화되었고 특히 라이브러리음악은 눈으로 과정을 확인해가며 그 자리에서 음원가공을 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작곡에서는 만들기 힘들었던 음악을 몇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도 새로운 작품처럼 재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라이브러리음악을 원곡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공을 통해 사용하는 방식은 창작품으로서의 가치나 원곡의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만, 음악감독들은 음악의 가치보다는 효과적인 이용을 우선하여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디지털화는 라이브러리음악과 같은 저작물에 영향을 미쳤고, 저작물의 창작과 유통, 이용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디지털환경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고 여러 사람에게 송수신하는 방식은 무척 편리해졌다. 즉 디지털환경과 라이브러리음악의 보편화는 작곡방식에서는 제한적 요인이었던 자유로운 음악사용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가공과 재생산을 통해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의 다양성을 확대시키고 비용과 제작시간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4.2 라이브러리음악 사용과 생산자들의 관계 변화

4.2.1 생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디지털 라이브러리음악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이후 다큐멘터리 제작은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다큐멘터리에 라이브러리음악이 사용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다양한 음악을 선곡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반면,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생산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면서 정형화된 제작방식이 고착화되어 간다는 부정적인 변화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생산자들 특히 연출자와 음악가 사이에 대화가 사라지고 편리성이 우선되다 보니 영상에 음악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연출자와 음악가가 어떤 시각으로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선택되고 나름의 미학을 갖추게 되는데, 라이브러리음악이 사용되면서 이러한 연

출의도를 간과한 기계적인 음악사용이 늘어나고 있었다.

얼굴 맞대고 일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심지어는 누군지도 모르고 작업을 해요. 녹음파일을 보내고, 나중에 틀어진 부분을 몇 초만 맞추면 되는,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이 공식화되어 가는 추세라 할까요. 그런 미학은 존재 가치가 없는 규격화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K1-작곡가)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은 연출자와 음악가가 편집영상과 스토리 전개방식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이에 맞게 곡을 사용해야만 나름의 미학을 갖는다. 연출의도를 간과한 음악은 단순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 라이브러리음악 사용으로 시간과 비용절감이라는 경제성이 부각되면서 연출자와 음악감독이 의견을 조율하며 음악작업을 진행하던 방식이 점차 사라지고, 최소한의 의견만을 교환하며 얼굴도 못한 채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 생산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연출자와 음악감독 간의 교감이 사라진 규격화된 음악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는 연출자와 음악감독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다. 프로그램 제작은 일반적으로 후반작업 과정에서 기술 엔지니어나 다른 제작 스태프의 조언을 받아가며 완제품이 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나타났다. 즉 라이브러리음악을 파일로 주고받으면서 쉽고 편리하게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연출자와 음악가의 조율 외에 다른 전문가 즉 3자의 조언을 참조할 수 없는 정형화된 음악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다큐멘터리 제작이 다양한 생산자들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채 연출자와 음악감독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프로그램의 음악완성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완작을 하면서 엔지니어들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들은 수많은 프로그램을 작업하다 보니 어지간한 피디나 음악가들보다 음악을 잘 알아요. 이들은 또 최초의 시청자라서 프로그램의 음악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과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기능적인 편리함이 득이라면, 전문가의

훈수랄까 조언이 사라진 것은 분명 손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잃었지요. (H-PD)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으로 라이브러리음악 사용이 고착화되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제작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생산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방송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연출자의 능력과 제작비, 제작기간에 따라 품질이 결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들은 방송시간에 쫓기며 촬영과 편집작업이 마무리되어 방송된다. 특히 외주제작사들은 한정된 제작비의 범위 내에서 짧은 시간에 프로그램을 제작, 납품해야 하는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라이브러리음악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라이브러리음악의 선곡방식은 이러한 열악한 외주제작사의 환경과 분리하여 인식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라이브러리음악 시장이 커지면서 선곡자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선곡자에 대한 연출자의 의존도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연출자들이 시간과 비용 때문에 그런지 음악을 음악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외주 PD들이 그렇습니다. 편집 마치면 영상을 보내주면서 알아서 음악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참 막막하죠. 작곡할 때는 그래도 이 단락은 이런 음악, 또 여기는 이런 분위기라고 말해줘서 좋았는데, 내 영감으로 작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K2-작곡가)

라이브러리음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생산자들의 인식은 다큐멘터리 배경음악 사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 절감을 이유로 프로그램의 의미나 연출의도에 대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음악 선곡이 이루어짐으로써 음악사용의 규격화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디지털 방송환경에서 라이브러리음악의 사용은 경제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들 간에 균형있는 소통과 교감이 부족해짐으로써 미적 가치를 잃은 채 도식화된 음악이 대량 삽입되는 폐해를 낳고 있다고 하겠다.

4.2.2 음악가의 위상변화- 작곡가의 주변부화

다큐멘터리 음악이 생산되기까지는 다양한 생산자들의 힘, 즉 생산자 권력이 작용한다. 배경음악은 연출자와 음악감독은 물론, 엔지니어와 작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작스태프들의 의견이 참조되어 사용된다. 그런데 인터뷰 결과, 다큐멘터리 제작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라이브러리음악이 폭넓게 사용되면서 다큐멘터리의 생산자 가운데 연출자와 작곡가 그리고 선곡가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출자 Y는 라이브러리음악이 보편화된 이후 음악가 중에서도 특히 작곡가의 위상은 확연히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선곡으로도 훨씬 배경음악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작곡가는 필요없게 되었고 그들은 위축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음악가로서 대우를 받았지만, 요즘은 속된말로 관둘이가 되고 말았죠. 아웃사이드가 된 거예요. 반면에 선곡자의 활동범위나 역할은 늘어났어요.(Y-PD)

다큐멘터리에 라이브러리음악이 사용되면서 선곡자들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작곡가의 위상이 눈에 띄게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연출자 Y는 “예전에는 작곡가 누구 누구하면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았고 그들도 나름 방송음악 작곡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음악 사용이 늘어나면서 작곡가의 권위가 사라지고, 작곡가가 떠난 자리를 선곡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큐멘터리 제작현장에서 작곡가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작곡음악은 존립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며 선곡자들 위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유명 작곡가와 일할 때, 곡이 맘에 안 든다거나, 바꾸어 달라는 말을 선불리 못했죠.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거든요. PD들이 작곡가를 전문 음악가로 대우했고, 작곡가들도 연출을 중요시 했죠. 라이브러리음악사용이 보편화된 요즘은 서로가 그러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Y-PD)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 연출자와 음악감독들은 프로그램 배경음악을 공동작업으로 인식하며 곡을 디자인해

왔다. 다큐멘터리 음악을 작곡하기 위해서 연출자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음악을 위해 고민하고 작곡가는 본인만의 음악적 특성이나 나름의 느낌, 의미를 찾아 심혈을 기울여 곡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출자와 작곡가가 배경음악 사용을 두고 의견이 달라 심하게 갈등을 빚고 심지어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많았다”(연출자 Y)고 한다. 그러나 이는 배경음악 사용을 두고 빚어진 생산적인 갈등과 대립으로서, 연출자와 작곡가는 대화와 교감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며 프로그램을 완성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이브러리음악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연출자와 음악감독의 업무는 분업화되고, 음악감독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선곡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작곡방식과는 달리 라이브러리음악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연출자와 음악감독의 위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디지털 방송환경에서 전문 작곡가들이 주변부로 내몰리게 됨으로써 방송음악 감독들의 전공변화라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동안 방송음악 작곡가들의 대부분은 대학에서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거나, 영화음악이나 대중가요 분야에서 작업하다가 방송가로 이동한 전문가들이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음악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오랫동안 작곡을 해왔던 이들은 높은 몸값(작곡료)으로 인하여 방송가에 더 이상 발붙이기 힘든 여건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각 대학에는 컴퓨터 음악과와 디지털 음악과, 실용음악과 등 음악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고, 이들이 대거 방송계로 진출하면서 방송음악인의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통 순수음악 전공자가 아닌 실용 음악인들이 방송 음악계에 진출한 것이다. 또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음악 마니아의 상당수가 방송음악에 관심을 두고 방송음악 분야로 유입되었다. 이들은 방송에 활용되는 라이브러리 음원을 만들고, 선곡 작업에 참여하면서 방송음악 전문가로 점차 자리 잡아갔다. 방송의 디지털화와 라이브러리음악 사용의 보편화로 인하여 음악을 선택하는 일은 음악에 대한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음악적 감각이나 컴퓨터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 작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방송음악 감독의 영역이 고전음악 전공자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차츰 실용음악이나 비전공자들에게까지 확장된 것이다.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대 작곡과나 버클리 음대 나온 사람들 보다 나이트클럽 디제이(DJ) 출신이 방송음악은 더 잘한다고 이 바닥은 음악을 많이 공부하고 잘 만든 것보다도 그때그때 적시에 음악을 잘 만들고 넣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잘 아는 디제이가 음악을 훨씬 잘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지도 모릅니다.(J2-음악가)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음악의 사용은 음악감독의 역할이 선공중심이 되면서 음악감독들에게는 전공이 무엇이고,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보다는 음악을 폭넓게 알고, 빠르게 음악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 된 것이다. 즉 작곡을 못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적합한 음악을 쉽고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다면 전공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방송음악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다큐멘터리 배경음악 시장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악인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음악이 프로그램의 특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방송음악이라는 고유영역, 전문영역의 파괴에 대한 염려로 이어지고 있다. 방송 다큐멘터리를 이해하고 전문화되어야 할 음악작업이 단순한 기능으로 대체됨에 따라 방송음악이라는 영역 자체가 전문영역에서 서비시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배경음악 작업 방식의 변화는 음악감독들의 위상과 권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작곡가 K1은 “선형방식에서는 영상과 음악을 매칭(matching)을 했다면, 비선형 방식에서는 음악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편집을 위한 소스(source) 짬으로 전락되었다. 완전히 분업화 되었다. 음악가는 소스만 제공하는 격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음악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났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라이브러리음악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음악감독이 작품으로서 방송음악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음악자원을 제공하는 단편적인 기능인에 머무르게 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이 내용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인 세계관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 기계적이고 단편적인 음악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환경에서 라이브러

리음악의 보편화는 쉽고 편리한 방식이 득(得)이라면 작품의 완성도 결여는 실(失)로 나타나 작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특색없는 배경음악이 양산되는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환경의 변화와 라이브러리음악의 보편화 이후에 나타난 다큐멘터리 생산자들 간의 관계변화와 음악인의 주변부화는 결과적으로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의 단편적이고 도식적인 사용에서 나아가 다큐멘터리의 품질저하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4.3 라이브러리음악의 한계

4.3.1 저작권 문제와 다큐멘터리 품질의 양극화

앞서 문헌연구에서 살펴본바와듯이, 아날로그 시절 세계 음악시장은 음반중심의 산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파일 형식의 디지털 라이브러리음악이 전 세계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라이브러리음악은 국제적인 음원 제작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음악이다. 제작사들은 유명 작곡가나 연주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음악을 생산하고, 기존에 발매된 음악까지도 사들여 여러 국가의 방송사나 음악 수요자에게 음원을 공급한다. 라이브러리음악은 일정의 저작권료와 사용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과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화된 라이브러리음악은 국내 방송 콘텐츠 시장과 음악시장을 크게 변화시켰다.

저작권을 계약하고 음악을 사는데, 라이브러리 회사마다 계약조건은 다릅니다. 그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옵니다.(중략) 대부분 우리나라 국내방송용으로 계약이 되거든요 PD들이 라이브러리를 원하면 그걸 써주고 국내 방송을 내보내고, 수출할 때는 작곡하는 사람들이 다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J1-작곡가)

현재 방송가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음악은 대부분 국내 방송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라이브러리음악은 국내방송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라이브러리음악을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해외로 판매할 때는 음악을 재계약하고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방송한다면 비용이 저렴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도 방송하려면 지급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해외로 판매하거나 콘테스트에 출품할 때는 저작권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새로운 음악작업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계약조건이 라이브러리음악 사용에 있어 한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곡가 KI은 “자연다큐멘터리에 라이브러리음악을 넣어 방송이 나갔는데 이후 출품 때문에 곡을 작곡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가끔 있죠. 해외에 출품할 때는 반드시 음악작업을 다시 합니다”고 말하였다. 라이브러리음악이 저작권이라는 뜻에 걸려 프로그램에 사용된 배경음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잡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을 생각하면 작곡음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작곡음악은 라이브러리음악보다 비용의 측면에서 부담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BBC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제작되고 있어요 MBC 특집다큐도 요즘은 그런 추세라서 음악을 작곡해서 쓰지요. 하지만 외주 다큐는 제작비나 인력, 장비 등에서 아직 그럴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다큐멘터리 품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C-PD)

정규편성 다큐멘터리의 대부분은 선곡방식으로 배경음악을 사용하고 있지만 방송사에서 전략적으로 기획한 ‘특집 다큐멘터리’들은 음악을 작곡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외주다큐멘터리는 방송사에서 책정한 제작비를 기준으로 단기간에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 까닭에 비용과 시간에 쫓겨 라이브러리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방송사의 ‘특집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확장, 즉 해외 판매까지를 고려하여 작곡음악이 사용되지만 열악한 재정상태의 외주사들이 제작하는 단발성 프로그램은 작곡음악 사용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전적으로 라이브러리음악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연출자 S는 라이브러리음악의 보편화 이후 다큐멘터리는 고급과 저급으로 양분되었다고 말하였다.

방송사 자체제작 특집은 작곡, 외주프로는 선곡으로 공식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외주에서는 비용 때문에 작

곡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싸고 사용하기 편리한 라이브러리음악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 고급 프로그램과 싸구려 프로그램이라는 인식, 두 다큐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S-PD)

최근 각 방송사들은 수준 높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자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해외로 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특집 다큐멘터리는 BBC나 내셔널지오그래픽의 프로그램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대규모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이 투입되며 배경음악도 작곡가에게 의뢰하여 수준을 높인다. 이렇게 제작된 특집다큐멘터리는 외주제작 다큐멘터리와는 질적인 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난다. 열악한 제작환경으로 인해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외주제작의 다큐멘터리는 대부분 국내에서만 방송이 가능하도록 저작권이 체결된 라이브러리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해외로 판매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디지털 제작환경에서 라이브러리음악 사용은 당연한 변화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작권으로 인하여 해외수출의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적인 라이브러리음악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의 질적 개선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판매, 나아가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다큐멘터리 생산환경의 차이로 인한 프로그램 품질의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4.2.2 시청률을 의식한 배경음악 사용

최근 종합편성 채널과 각종 인터넷 TV 등 신규매체가 출현하면서 방송사간 경쟁이 치열해져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시청률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연출자들은 시청률 압박으로 인하여 영상 위주의 편집을 하거나 자막과 효과음 등을 빈번하게 사용한다(홍경수, 2000). 이처럼 매체간의 경쟁과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은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연출자 K3은 “요즘은 예술적인 것보다 센세이션, 재미를 우선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을 써서라도 시청률을 조금이라도 올려 보려고 하죠.

그러다보니 음악이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음악 자체로 시청률을 높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시청자 대부분은 음악 때문에 프로그램이 좋다고 말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좋은지 나쁜지 말하지요. 단지 시청률이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음악을 많이 사용합니다”고 말하였다. 작곡가 K1과 연출자 K1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 연출자와 음악가들이 다큐멘터리의 시청률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압박감으로 인하여 배경음악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큐는 프로그램의 흐름 때문에 음악을 많이 쓰기는 부담스럽지만, 프로그램에 음악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음악을 많이 사용하죠. 오디오상으로 빈 것보다는 꼭 찬 느낌이 프로그램의 퀄리티나 호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악을 많이 넣는 것입니다. 또 라이브러리음악은 넣기 쉽고 편하기 때문에... (중략) 결국은 경쟁력, 즉 시청률 올리려고 음악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K1-PD)

전체 분위기를 이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빈 공간을 메꾸는 정도랄까요? 음악에 대한 이해보다 그냥 음악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을 원해요. 요즘은 시청률이란 강박관념 때문에 연출자의 90%는 음악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냥 쓰는 것이어요. (K1-작곡가)

이와같이 연출자와 음악가들은 배경음악이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을 때의 효과 외에 시청률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음악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라이브러리음악이 널리 사용되면서 음악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현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큐멘터리에서 배경음악의 사용은 필연적이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다. 그렇지만 시청률을 의식한 배경음악의 과잉사용을 염려하는 연출자의 지적도 있었다. 배경음악이 음악적인 고려없이 시청률 압박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됨으로써 오히려 프로그램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듀서 K2는 “음악 자체의 기능은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과잉으로 사용하면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는 나쁜 다큐”라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라이브러리음악은 몇몇 판매상들에 의해 비슷한 음악이 다수의 음악인들에게 판매되어 소비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특정 음악이 같은 방송사의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가 하면, 타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기 대중가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음악이 여러 채널의 각기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흘러나오기도 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나 좋아하는 스타일은 항상 제한적이에요 (중략) 예를 들면 시간을 조금 주고 빨리 음식을 골라보라고 하면 먹고 싶은 것은 많지만, 대충 떠오르는 짜장면 시키는 것,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음악도 급하게 시간주고 난 다음에 빨리 만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백만 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 중에, 갖고 있는 것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중에서만 고르는 거예요. 그런 음악이 제대로 된 음악일까요? (H-PD)

위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한정된 음악이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특색 없는 배경음악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라이브러리음악 가운데 좋은 곡이면 누구나 골라 사용할 수 있는 보편성과 시청률을 의식하여 프로그램의 음악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결여되는 폐해를 낳고 있다. 즉 시청률 경쟁에서 비롯된 배경음악의 과다 사용과 반복 사용은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온다고 하겠다.

5.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디지털화된 방송제작 환경에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배경음악 사용에 대한 생산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배경음악 사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해보았다. 이를 위해 다큐멘터리 연출자 및 음악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다큐멘터리 생산자들은 라이브러리음악의 작품성과 다양성, 그리고 편리성에 주목하며 이를 배경음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라이브러리음악

을 작곡음악과는 달리 유명 작곡가나 연주자들에 의해 제작된 수준 높은 음악으로 여기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라이브러리음악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음악의 가공과 재생산을 통해 다큐멘터리에 접목하기에 편리하다는 점이 라이브러리음악 확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음악의 보편화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생산자들의 권력관계와 배경음악 작업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다큐멘터리 연출자와 음악감독의 공동작업이었던 배경음악 생산은 편집 영상을 이메일 등을 통해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작환경이 되면서 생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연출자와 음악가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는 업무의 분업화와 배경음악을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재료(source) 정도의 기능에 머물게 함으로써, 음악인들은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라이브러리음악 사용으로 다큐멘터리 배경음악 작곡가들은 설 자리를 잃고 다른 분야로 이동하거나 단순한 선곡작업에 참여하는 방송가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하였다. 연출자와 치열하게 고민하며 배경음악을 만들어 왔던 작곡가가 배경음악 생산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은 창작 작품으로서 배경음악의 가치를 더 이상의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큐멘터리 생산자들은 라이브러리음악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악사용이 프로그램 제작과 다큐멘터리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는 라이브러리음악사용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지만, 라이브러리음악을 삽입한 다큐멘터리 작품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해외 판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라이브러리음악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과 외주제작 다큐멘터리의 품질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제작환경이 열악한 외주사의 경우 제작기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값싸고 편리한 라이브러리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방송사 프로그램은 고급, 외주사 프로그램은 저급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의식한 강박관념은 배경음악 사용의 과잉으로 나타남으로써 다

큐멘터리 배경음악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방송 디지털화에 따른 라이브러리음악의 등장은 국내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의 변화에 양면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브러리음악은 다양성과 경제성, 가공성, 편리성 등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음악이다. 그러나 라이브러리음악이 보편화되면서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은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채 상품화 되어 ‘문화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즉 비용절감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다큐멘터리 배경음악 사용이 갖는 경제적인 논리는 도식화되고 규격화된 음악생산을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 배경음악의 질적 수준 저하는 물론 다양한 방송제작 관련 주체들의 창조적 생산활동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즉 방송음악이 고유영역, 전문영역이 아닌 프로그램에 음악자료를 제공하는 단편적인 기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은 영상과 더불어 시청자에게 이성과 감성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이며, 프로그램의 균형감과 영상미를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코너(Corner)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안에서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음악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폭넓고 지속적인 예술 역할에 대한 탐구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배경음악이 지니는 문화적 특징과 수준높은 미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연출 의도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작업되어야 하는 창작예술 장르라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영상뿐 아니라 배경음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방송제작의 디지털환경이 갖는 이점은 충분히 활용하되, 배경음악 사용이 외국에서 구축된 라이브러리음악에만 의존하는 답보상태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은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사용되어야 하지만, 이 때 배경음악은 단순한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의미를 전달하고 미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전문화된 영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텔레비전 다큐

멘터리 배경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효과적인 배경음악 사용 방식과 연구에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 배경음악 발전에도 미약하나마 기여하길 희망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앞에서 서술한 의미 있는 결과와 함의를 담고 있지만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에 관한 더욱 발전되고 진전된 새로운 연구를 기대하며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 방송사 즉, MBC 다큐멘터리 연출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지만 여러 방송사의 PD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확대하였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둘째, 인터뷰 대상자를 확대하였다면 다큐멘터리 생산자들의 배경음악에 대한 인식과 라이브러리 음악 사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을 생산자 관점에서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 측면에서의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에 대한 새로운 연구영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경음악이 방송프로그램에서 배경음악이 시청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향후에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is sponsored by the 2014 research fund of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of university

REFERENCES

[1] Corner, J. Sounds real: music and documentary *Popular Music* 21(3), 357-366. 2002.
 [2] Frith, S. Look! Hear! The uneasy relationship of music and television. *Popular Music* 21(3), 277~290. 2002.
 [3] Chanan, M. Television's problem with (classical)

music, *Popular Music* 21(3), 367~374. 2002.
 [4] Simpson, D. Plug and play. *The Guardian*, 5 May. 2000.
 [5] Seung-muk, Kang. A Study of Local Broadcasting Program's Visual Image Format and Narrative Structure - Focusing on the Historicity and Locality of Historical Documentary.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1-2, p 9~45. 2007.
 [6] Mi-Su, Na · O-Yeol, Je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Narratives of Two TV Current-Affairs Documentaries: A Case Study of KBS's <In-Depth 60Minutes> and SBS's <We Want to Know That!> on the Trans-gender.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 6-4, p 89~132. 2006.
 [7] Byeong-hyun, Min · Seon-gi, Baek. A Study on the Way of Composition and the Realization of Realism concerning Images of TV Current Affairs Documentary Program : Focused on KBS, MBC and SB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3-3, p 267~295. 2009.
 [8] Myoung-Hee, Shin · Chang-Sook, Kim. Acceptability Study of Applied Media Aesthetics Factors in TV History Documentary.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 6-3, p300~341. 2006.
 [9] Young-Chan, Kim · Jihee, Kim. Narrative Analysis of an Audition Program, 『*Journal of Broadcasting & Communication*』, Vol. 13- 3, p 45~76. 2012.
 [10] Jong-su, lee. Populizing Strategies Employed by Nature/Environment Documentaries : Comparative Analysis of "Tears of Amazon" (MBC) and "Amazon with Bruce Parry" (BBC 2).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4-3, p374~398. 2010.
 [11] Hyun-Ju, Choi. A Study on the Rhetorical Structure of TV Environmental Documentary : A Case Study of a KBS Environmental Special Program,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 Communication Studies』, Vol. 49- 6, p471~536. 2005.
- [12] Hyun-Ju, Choi. A Comparative Study on the Narrative Structure of TV Documentary Genres: A Case Study of a <In-depth 60 Minutes> and a <Environmental Special Program> on KB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0- 2, p415~441. 2006.
- [13] Seungyeup, Kang. A study on the chronological quility and formation of the korean TV documentary 『The Society of Modern Photography & Video』, 2004.
- [14] In-Kyu, Park. The Factuality of Documentary and Its Transformations, 『Phenomenot and Understanding』, Korean Associ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98, p148~170. 2006.
- [15] Hyen-Suk, Yoo. Redefining Television Programme Genre. A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for the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Communication Studies』, p114~116. 2009.
- [16] Jongsu, lee. Korean Human Documentaries in the Changing Historical Context-An analysis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ocumentary text and social context , 『Media & Society』, Vol. 10-2, p35~72. 2002.
- [17] Pyoung Kuk, Jeon. A Study on the Boundary of Documentary Genre in the Multimedia Era. 『Cinema Studies』, Vol. 37, p352~380. 2008.
- [18] Hyun-Ju, Choi. A Study on the Change of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TV Environmental Documentary,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 9- 2, p569~606. 2009.
- [19] Hyun-Ju, Cho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Change of Documentary Storytelling.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13- 2, p397~432. 2013.
- [20] Kyung-Hee, Kim. Hee-Seon, Chung. The Impact of Internet Media on news Documentary-Making Proces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7-4, p 106~135. 2003.
- [21] Oh Heuyn, Lee. An ethnographic research on the production process of a television documentary program Focusing on the selection process of people in <Reading Korean Modern History Through People> . 『Media & Society』, Vol. 13-2, p117~156. 2005.
- [22] Jin Ee, Lee. (The) Transition of Korean TV Documentaries in the 2000s : Analysis of Contents, Formats and Factors Causing Change』. Ph.D.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2013.
- [23] Jeong-seon, Kim. 『A study on the documentary sound of the Korean television』. M.A.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10.
- [24] Chul, Heo · Jeong-seon, Kim. Can you hear documentary? - A critical approach on the production convention of documentary sound in Korea . 『Media & Society』, Vol. 18- 2, p82~128. 2010.
- [25] Shin-Young, Park. The Effects of Text and Music as Communication Message on the Receiver's Responses - Focusing on EBS <Knowledge Channel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4-6, p 168~208. 2010.
- [26] Jin-Ha, Oh. 『The Research of the domestic broadcasting documentary music』, M.A. dissertation, Sang Myung University, 2005.
- [27] Kyung-Soo, Hong. <Healing Camp>, Appearance of Sound Narrative and it's Implication. 『Journal of Contents Society』. Vol. 13- 2. p81~87. 2013.
- [28] Caldera-Serrano, J. & Zapico-Alonso, F. Seen and heard: duality at the access points to television databases. *Aslib Proceedings*, 58(4), 304~315. 2006.
- [29] Corner, J. Sounds real: music and documentary *Popular Music* 21(3), 357~366. 2002.
- [30] Dong, A. & Li, H. (2006). *Semantic Segmentation of Documentary Video Using Music Breaks*. Multimedia and Expo,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2006.

- [31] Wickes, R. *Foundation Blender Compositing Nonlinear Video Editor*. Springer. Friendsop press, 391~421. 2009.
- [32] Ji-A, Hong. The influences of digital technology on documentary production: focusing on First Person Documentary. A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fo the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ting & Communication Studies, 141~153. 2002.
- [33] Donnelly, K. J. Tracking British television: pop music as stock soundtrack to the small screen, *Popular Music 21(3)*, 331~344. 2002.
- [34] Negus, K. & Street, J. Introduction to 'Music and Television' special issue. *Popular Music 21(3)*, 245~248. 2002.
- [35] Yoon Kyung, Kim. A Study on Broadcasting Music the Present State and Reform Measure. M.A. dissertation, Sang Myung University, 2008.
- [36] Hee-Chun, Mun. Research on the Change of Market Environment Due to Convergence of the Music Industry and Digital Technology: 『Focus on Convergence Problem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t Manag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nguk University, 2011.
- [37] Alten, S. *Audio in Media*. Wadsworth Publishing. Yoon-Chul Kim (2006). 『Sound of Media』, Communication Books. 2005.
- [38] Chun-Ang, Park. A study on improvement in sound making of TV post production, M.A. dissertation, Sang Myung University, 2008.
- [39] Chang-young, Yoo. 『Research on ways of developing the outside production content of Koreas major networks』, M.A.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1
- [40] Hye Ock, Seo. A study on the digital image editing : 『Communication Design Studies』, Korea Society of Design Science, Vol.- No.15, 2004.

이 희 중(Lee, Hee Chung)



- 2003년 2월 : 전북대학교 언론홍보학 (석사)
- 2014년 2월 :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
- 2010년 3월 ~ 현재: 대전보건대학교 방송콘텐츠과 교수
- 관심분야 : 방송영상, 다큐멘터리
- E-mail : hjleepd@hanmail.net

나 미 수(NA, Mi Su)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2001년 7월 : 영국 버밍엄대학교 문화연구학과(박사)
- 2003년 8월 ~ 현재 :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방송, 대중문화
- E-Mail : misuna@hanmail.net